

※ 내용 구성: 여수 신기초등학교 교사 박수영

털장갑 속 하트뽕

고정욱 글
자몽팍 그림

※ 이 활동지는 비전비엔피 홈페이지(www.visionbp.co.kr) 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단원

3-1 도덕 3. 사랑이 가득한 우리 집

4-2. 국어 9. 감동을 나누며 읽어요

3-2 국어1. 작품을 보고 느낌을 나누어요

5학년 도덕 3. 긍정적인 생활

4-1 국어 10. 인물의 마음을 알아봐요

6학년 도덕 1. 내 삶의 주인은 바로 나

주제

#가족 #이웃 #가족애 #공감 #나눔 #위로 #배려

분야

국내도서 > 어린이 > 동화/명작/고전 > 국내창작동화

대상

초등 3~6학년

도서 소개

초등 중·고학년을 위한 그린애플의 동화 시리즈 '사과밭 문학 특' 열 번째 책으로 고정욱 작가가 쓴 단편 동화 모음집 《털장갑 속 하트뿔》이 출간됐다. 고정욱 작가는 초등 4학년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가방 들어주는 아이》를 비롯해 《안내견 탄실이》, 《아주 특별한 우리 형》 등 우리 사회를 더 따뜻하게 하는 이야기들을 집필해 왔다.

이번 작품 역시 훈훈한 감동이 담긴 여섯 편의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다. 할머니를 걱정하는 손자, 장애가 있는 아들을 위해 학교 청소를 시작한 아빠, 생명의 은인인 포장마차 주인을 위해 용돈을 내놓는 아이, 금은방을 습격한 강도에게 온정을 베푼 주인, 웹툰만 보는 아들을 위해 기발한 조언을 하는 동화 작가 아빠, 화장실에서 책을 읽는 아들을 비로소 이해하게 된 엄마의 이야기는 어디서든 마주할 수 있는 우리 이웃의 삶을 담아낸다. 가족애가 사라져 가고, 타인을 위한 봉사와 헌신이 그 빛을 잃어 가며, 나 혼자만 잘살면 그만이라는 개인주의가 팽배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이 책은 마음속에 따뜻한 온기를 전해 줄 것이다.

독서 활동지 차례

읽기 전 활동	읽기 중 활동 - 꼼꼼히 읽기	읽기 후 활동
• '겨울' 마인드맵	<ul style="list-style-type: none">• 꼼꼼히 읽기(1)• 꼼꼼히 읽기(2)• 꼼꼼히 읽기(3)• 꼼꼼히 읽기(4)• 꼼꼼히 읽기(5)• 꼼꼼히 읽기(6)• 어휘력 쑥!	• 이야기를 선물합니다

※ 활동지의 차례는 예시입니다. 활동지를 살펴본 후 책을 읽기 전에, 책을 읽으며, 책을 읽은 후에 본인에게 맞는 주제를 선택해 활동합니다.

겨울 마인드 맵 그리기

책 표지에는 귀여운 하트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포장마차와 그곳을 이용하는 사람들 - 어린이와 어른, 가족들이 있습니다. 귀여운 고양이들도 있고요. 포장마차의 붕어빵과 어묵과 같은 음식은 추운 겨울 날씨에 먹으면 몸과 마음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지요. 겨울을 생각하면 어떤 음식과 물건이 떠오르나요? 겨울과 관련된 여러가지 느낌이나 생각 등을 마인드맵으로 그려보아요.



꼼꼼히 읽기

(1) 저승 사자를 물리친 자개장

- 손자 성운이가 자개장에 있는 여러 풀과 나무, 동물들에게 어떤 부탁을 했는지 써 보세요.

- **나만의 특별한 물건 소개하기**

할머니의 자개장처럼 나에게도 오래 곁에 두고 있는 특별한 물건이 있나요. 꼭 오래 가까이한 물건이 아니라도 특별히 좋아하는 물건이 있나요? 내가 좋아하는 물건, 나에게 특별한 물건을 글과 그림으로 소개해 봅시다. 물건과 얽힌 이야기를 들려주면 더욱 좋아요.

꼼꼼히 읽기

(2) 아빠는 슈퍼맨

- 이 이야기의 제목을 <아빠는 슈퍼맨>이라고 한 까닭은 무엇인가요? 어떤 점들 때문에 성준이의 아빠를 슈퍼맨이라고 말한 것인지 생각하며 이야기해 봅시다.

- 우리 부모님 혹은 할머니나 할아버지, 주변의 어른이나 나의 친구가 '슈퍼맨'처럼 느껴진 적 있나요? 어떤 상황에서 그랬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꼼꼼히 읽기

(3) 크리스마스에 있었던 일

- 태민이가 다소 이기적인 아이로 자란 까닭은 무엇일까요? (43쪽 참고)

- 초성 퀴즈 맞추기 'ㄱ ㄱ 능력'

태민이의 아빠는 태민이에게 이 능력을 키워 주기로 결심합니다. '남의 아픔을 자기 일처럼 느끼는 ㄱ ㄱ 능력'.(58쪽) 이 능력은 무엇인가요? ()

참고
 '부모가 아이 말에 귀 기울이고 감정에 ㄱ ㄱ하며 올바른 훈육을 하면 이기적인 생각들을 조금씩 버리고 예의 바른 아이로 자랄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것입니다.'(58쪽)

- ㄱ ㄱ 능력' 2행시 짓기

태민이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위에서 말한 'ㄱ ㄱ' 두 글자로 2행시를 지어 봅시다.

ㄱ	
ㄱ	

꼼꼼히 읽기

(4) 금은방에서

- 민용이가 물건을 훔치거나 험한 말을 하며 비뚤게 행동을 하게 된 까닭은 무엇일까요? (66쪽)

- 금은방 사장님의 도움을 받고 성실하게 일을 하던 민용이가 갑자기 금은방 출근을 하지 않습니다. 그 까닭은 무엇인가요? (71~72쪽)

- 빈 칸에 들어갈 낱말을 써 봅시다.
[꿈은 원래 □□을 이겨 내고 이루어질 때 더 보석처럼 빛나는 법이야. 네가 배우는 귀금속 가운데 다듬고 깎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지 않니?]

- 더 생각해보기
범죄를 저지르고, 소년원에 다녀왔다면 누구나 나쁜 사람일까요? 혹은 어떤 외모를 보며 누군가를 판단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며 좋을지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꼼꼼히 읽기

(5) 기발한 기부금

- 강혁이 아빠는 강혁이와 아내에게 즐겁게 남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어떤 것들이었나요?

- 주어진 문장 속 속담에 들어갈 낱말을 써 봅시다.

“(1) ㉠ ㉡ ㉢에 옷 젖는 법이야. 열심히 모으다 보면
(2) 티끌 모아 ㉣ ㉤이라고, 잘 사는 날이 올 거야.” (80쪽)

속담 (1) 뜻 가늘게 내리는 비에 옷이 조금씩 젖어든다. 혹은 옷이 젖는 줄을 금방 깨닫지 못한다.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거듭되면 무시하지 못할 것이 된다.

속담 (2) 뜻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모이면 큰 것이 된다.

*속담 뜻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창의력 쏙쏙 지혜 톡톡 속담

- 더 생각해보기

아래 구절을 다시 읽으며 ‘진정한 공부’란 무엇인가 더 생각해봅시다. 우리가 왜 공부하는지,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그래, 그런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엄마 아빠들은 자기 아이가 부당한 대우를 받을까 봐 공부해라 공부해라, 하는 건데 나는 진정한 공부는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에게도 배울 점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라고 생각해.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경험이 있고 생각이 있단다. 거기에는 분명히 배울 점이 있지. 그런 것을 잘 배워서 자신을 성장시키는 것이 공부야.”(93쪽)

꼼꼼히 읽기

(6) 화장실 도서관

■ 이색 도서관 만들기

민식에게는 화장실이 아늑한 도서관입니다. 나만의 도서관, 나만의 특별한 도서관을 상상하여 그려봅시다. 도서관의 모양, 도서관에 있으면 좋을 것 같은 물건들, 내가 좋아하는 책 등을 자유롭게 상상해 보아요.



어휘력 수록!

■ 주어진 뜻풀이를 소리내어 읽고, 해당하는 낱말을 '보기'에서 찾아 써 봅시다.

[보기 - **십장생** / **희노애락** / **해코지** / **청산유수** / **산모퉁이** / **세공** / **감정**]

<p>■ 산모퉁이의 휘어 들어 간 곳</p>	<p>*()를 하나 돌아 저만치 할머니 집이 보이자 성운이는 가슴이 콩다콩닥 뛰기 시작했습니다. 8쪽</p>
<p>■ 오래도록 살고 죽지 않는다는 열 가지. 해, 산, 물, 돌, 구름, 소나무, 불로초, 거북, 학, 사슴이다.</p>	<p>*그랬습니다. 성운이가 자신도 모르게 자개장의 ()들에게 영혼을 불어넣었던 것입니다. 14쪽</p>
<p>■ 남을 해치고자 하는 짓</p>	<p>*“여기 수상한 사람이 있어요! 아이들한테 () 하려나 봐요.” 35쪽</p>
<p>■ 기쁨과 노여움과 슬픔과 즐거움을 아울러 이르는 말.</p>	<p>*티미가 ()을 느낄 때마다 똥하게 쳐다보던 태민이는 점점 이야기에 빠져들었습니다. 51쪽</p>
<p>■ 손을 많이 들여 정밀하게 만들. 또는 그런 수공(手工).</p>	<p>*“금 () 기술을 배워라. 저녁반이 있다니까 금은방 마치고 가서 필요한 기술을 배우면 돼.” 70쪽</p>
<p>■ 사물의 특성이나 참과 거짓, 좋고 나쁨을 분별하여 판정함.</p>	<p>*“사장님, 보석이 백 가지가 넘어요. 그걸 다 ()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너무 재미있어요.” 70쪽</p>
<p>■ 푸른 산에 흐르는 맑은 물이라는 뜻으로, 막힘없이 썩 잘하는 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p>	<p>* “작가 아니랄까 봐 아빠는 입만 열면 () 입니다.” 83쪽</p>

이야기를 선물합니다

고정욱 작가는 이 책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이들의 힘들고 지친 마음을 위로할 이야기들 여섯 편'이라고요. 우리 책을 읽고 조금이라도 마음이 따뜻해졌다면, 그 마음을 나름대로 표현하고 전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 한 가지 방법으로, 이야기 선물하기를 제안합니다. 읽은 이야기 중 가장 좋아하는 것 하나를 골라 친구나 가족, 이웃에게 선물해 봅시다. 낭랑한 목소리로 소리내어 읽어주어도 좋고, 좋아하는 구절을 소개해도 좋아요. 그림이나 만화, 편지 형식으로 이야기의 내용을 전해도 좋겠습니다. 아래의 선물 계획서를 작성하며 특별한 이야기 선물을 준비해보면 어떨까요?

*내가 선물하고 싶은 이야기는?

*누구에게?

*어떻게 선물할 수 있을까?

*이 이야기를 선물하고 싶은 까닭은?

*선물한 후 내 느낌이나 생각도 메모해 봅시다.

[정답 - 어휘력 쑥!]

(위에서부터) 산모롱이, 십장생, 해코지, 희노애락, 세공, 감정, 청산유수